



### 우리시대 참스승

포천고등학교 교장 정대운

# ‘엄격한 교육으로 人材 양성’

## 포천고 농어촌 특별전형 대상학교로 포함돼야

“소규모 학교에 주로 부임하다 보니 가는 곳마다 교육여건이 열악한 탓으로 50%이상의 학생들이 영어교과서를 읽을 줄 모르고 공부하는 것을 보고 영어교과서를 다 외울 수 있도록 독려하고 매일 검사를 실시해 1년 만에 다 읽을 수 있도록 했다.”

포천고등학교 정대운(54·사진) 교장이 교육철학에 대해 설명한다. 학생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엄격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노력하여 성공한 제자들이 많다. 미국의 은행에 근무하는 제자도 있다. 영어와는 담을 쌓았던 학생들이 이러한 엄격한 교육으로 영어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다.

정 교장은 파주시 문산읍에서 태어나 문산 초등학교, 문산 북중학교, 문산고등학교, 중앙대학교, 대전대학교 교육대학원을 졸업했으며 1976년3월 연평중학교에 교사로 첫 부임했다.

의정부여자중학교, 포천여자종합고등학교, 천안중학교, 군남중학교, 의정부고등학교, 포천고등학교, 이릉중학교, 내촌중학교에서 교사로 근무중 교장으로 승진해 일산중학교, 호원중학교, 갈월중학교 근무중 교장으로 승진해 포천고등학교 교장으로 2006년9월1일자로 부임했다.

정 교장은 포천고등학교를 학교교육 브랜드를 통한 명품학교를 만들기 위해 ▶중은학교 만들기 ▶진로 지도 ▶교과 지도 및 방과후학교 운영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좋은학교 만들기 프로그램으로 기숙사 면입관은 5층 18개 호실로 성적 우수 학생, 원거리 통학생 및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선발해 개인별 전용 독서실에서 자기주도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방 운영하고 있다.



진로지도는 2006학년도 대학입학현황을 보면 졸업생 368명중 서울대학교 1명, 공군사관학교 1명, 상원대학교 2명, 중앙대학교 3명, 경희대학교 4명, 단국대학교 2명, 국민대학교 3명을 비롯해 건국대, 광운대, 상명대, 서울시립대, 숙명여대, 성신여대 등에 47명이 합격하였고 대진대 46명, 포천중문의대 5명 등 경인지역에 73명, 강원대 38명을 비롯해 기타 지방권에 160명이 합격, 4년제 대학에 총 280명이 진학했고 2년제 대학에 51명이 진학해 89.94%의 진학률을 보이고 있다.

통해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기주도학습을 위하여 전 교사가 일삼동체가 되어 밤 늦게까지 지도를 하고 있다.

현안문제로는 2003년10월 포천군이 포천시로 승격되면서 학교 소재지가 동으로 편성되어 2006학년도 졸업생부터는 농어촌 특별전형 대상에서 포천 관내 고등학교 중 유일하게 제외되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이 대학 진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인근 10분 내 거리에 있는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백방으로 노력을 하였지만 아직도 해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

정 교장은 “3월26일 KBS2 시사 tonight 프로그램에서 3월 정책에 대한 유지/폐지에 대한 인터뷰 요청이 있어 학부모 대표 이준희, 학생대표 이일안, 교사대표 배인구 교사가 3월정책(대학보고사, 고교등급제, 기어입학금지) 유지의 필요성에 대하여 인터뷰를 했다”며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은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어서 3월 정책의 유지가 필요하며 특히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에 포천고등학교가 제외된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농어촌 특별전형이 다시 환원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정 교장은 “이번 신입생의 경우 지난해보다 20여명의 고득점 학생들이 늘어나 포천지역 학생들이 외부로 나가는 것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학부모들이 슬하에 자식을 두고 교육하려는 의지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포천시민들을 향해 정 교장은 “모든 학생들이 내 자녀라고 생각하고 학생들의 비행을 목격하시면 시장을 요구하거나 관계당국에 연락하여 학생들을 반듯하게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한번 웃으면 한번 젊어진다”

## 대진대 CEO 과정, 황수관 박사 초청 특강

대진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원장 정재화)은 3월21일 황수관 박사를 초청해 특강을 개최했다.

이날 특강에서 황수관 박사는 ‘신바람 건강 10훈’을 통해 ‘머리에서 발끝까지 몸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야 건강하다’며 “발바닥을 느낄 때는 타님이 있고 이가 있다고 느낄 때는 치통이 있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특히 좋은 몸을 마셔야 건강하

다고 강조하고 몸이 좋다고 아무거나 섭취하게 되면 뇌 속에 기생충이 들어가 큰 병을 앓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황 박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습관을 바꾸는 것이라며 과식하지 말고, 과음하지 말며, 과로하지 말고, 과욕하지 말고 웃으며 살아갈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운동을 해야 건강하다고 한다. 운동은 숨이 차도록 하고 하

루 30분~1시간 정도 할 것. 1주일에 3일~5일 정도 할 것을 강조하며 “웃는 것은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비웃는 것은 도움이 안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건강에 관한 20권을 책을 출간하고 100여편의 논문을 발표한 황 박사는 “행복은 자기만족에 있다며 오늘부터 행복하게 살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과로하지 말 것을 강조하며 “잠이 오면 수면을 취하고 낮잠을 20~30분씩 잘 것. 밤12시 이전에 잠을 잘 것. 6시간 이

상 잘 것”은 건강을 위해 중요하며 “잠을 설치면 하루에 10만 개의 상의 뇌세포가 죽어간다”고 지적했다.

특히 황 박사는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며 “포근한 마음은 건강에 좋은 호르몬을 분비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진대학교 CEO과정은 이날 첫 강의를 시작으로 15주간의 학기를 시작했으며 13기 신입생 36명이 입학해 17기와 함께 수업에 들어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함께 공부해요

## 明長幼之序 ⑱

(장유간의 질서를 밝힘)

王制에曰父之齒를隨行 하고兄弟齒를雁行 하고不相踰나라輕任을并하고重任을分하여 顏白者不提挈 이니라君子者老는不能行 하고庶人者老는不能食 이니라

왕제에 왈 부치지를 수행 하고 형제치를 이행 하고 불상유니라 경임을 병하고 중임을 분 하여 반백자부제설 이니라 군자기도는 불도행 하고 서인기도는 불도식 이니라.

“齒 나이치隨 따를수 齒년유를輕가벼울경.并어울릴 병.顏나늘 반.提끌제. 髮손에들설. 齒. 늙은이기.徒무리도” (부치지 치는 나이. 아버지 연배 되는사람) 제설(提挈) 짐을 들고 다니는 것.

왕제에 말하기를 “아버지 연배 되는 어른에 대해서는 뒤에 서 따라가고, 형의 연배 되는 이에 대해서는 나란히 가되 조금 뒤떨어져 가며, 벗 사이에는 나란히 가고 서로 앞서지 않는다. 가벼운 짐은 연소한 자가 혼자서, 반백(顔白)된 자가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니지 않게 한다. 군자(君子)인 기노(耆老)는 젊어 다니지 않고, 서인(西人) 기로는 맨발을 먹지 않는다.” 하였다.

“아버지연배 되는 어른, 형님이 되는 어른 그리고 벗과 함께 길을 갈 때의 각각 다른 몸가짐을 논했다. 나이가 많을수록 공경의 정도를 더하는 것이 예의다. 지금은 교통 수단이 발달되어서 물건을 수송은 모두 차편을 이용하지만, 옛날에는 마스의 등에 실리지 않으면 반드시 사람이 들고 다녀야 했다. 나이 많은 이가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니는 것이 고역이 되기 때

문에 젊은이들이 대신 그 짐을 운반하는 것을 가지고 어른을 섬기는 도리로 생각했던 것이다. 머리털이 반쯤 센 노인이 짐을 들고 다니지 않는 사회를 理想 社會로 보았다. 젊은이들은 내 부모를 마땅히 내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을 미루어 남의 어른을 공경하고 도와야 할 것이다. 높은 벼슬을 지낸 노인을 걸어들어 다니지 않게 하고, 일반 노인도 반찬 없는 밥을 먹지 않게 하는 것은 모두 어른을 공경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일은 財政의 뒷받침을 필요로 하므로, 그 자손에게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국가의 적절한 사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문의 : 011-354-6485



양수준  
본지 자문위원

# 윤중성의 국제비즈니스 미국영어



## ■ 방문/출장

4. < 국제전시장 방문 > : 둘러보기 (1)

\* 입장권을 사야 하나?

슈라이바이 어패스?

<Should I buy a pass?>

\* 예, 손님, 5불입니다

슈어씨, 5달러입니다

<Sure, Sir, it's \$5.00>

\* 저기 매표부에서 사십시오

유엔게이트 애틀티켓부스데어

<You can get it at the ticket-booth there.>

\* 이 등록부를 기록해 주십시오

휠아웃시스 웨지스트웨첸 플러스

<Fill out this registration form, please.>

\* 대신 저의 명함을 주어도 되지요?

메이이거부 마이비즈니스스 인스택?

<May I give you my business card instead?>

\* 짐 보관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웨어캐나이스터에 디스라게이지스?

<Where can I store this luggage?>

\* 저기 모퉁이에서 좌로 돌면 있습니다

저스턴레후트 애틀코너

<Just turn left at the corner.>

문의 : 윤 중 성 (011-723-4977) callyoon@nate.com

# ‘글로벌 시대 영어구사능력은 필수다’

## 김진춘 경기도교육감, 학부모와의 만남에서 밝혀

김진춘 경기도교육감은 3월27일 오전 경기도포천교육청을 방문해 2007년 주요업무 현황 청취와 세계 인류를 지향하는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희망 경기교육의 비전’을 주제로 학부모와의 만남의 장을 가졌다.

이날 학부모와의 만남에서 김진춘 경기도교육감은 “앞으로 10년 후에는 영어구사능력이 없는 글로벌 시대에 살아남기가 힘들 것”이라고 강조하고 “경기도교육청은 영어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각 학교마다 원어민 교사를 배치해 영어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글로벌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학부모와의 만남에 앞서 개최된 주요업무 보고회는 최길용 경기도 포천교육장을 비롯해 유지원·유·초·중·고 학교장 대표 4명이 참석했으며 학부모와의 만남의 장은 포천시 관내 각급학교 학부모대표 5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도덕성과 창의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 육성 구현 방안의 역점 및 특색사업은 ▶정직, 봉사, 친절 실천 운동 전개 ▶포천 수업 명인식 제정운영 ▶유·초·중 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 운영 ▶테마 중심의 체험활동 전개 ▶내고장 포천 사랑 운동 전개 ▶포천 글로벌 인재 재교육 기르기 등이며 주요교육 활동은 ▶학력 관리 사항 ▶독서·토론·논술 교육 마당 ▶글로벌 인재 재교육 기르기 운동 전개

▶각종 교육활동 공모신청 추진 ▶진로지도 현황 등 당면한 교육활동 과제와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학력향상의 목표제시와 글로벌 인재 재교육 기르기의 2개 영역 추진활동과 아침 독서 10분 활동을 기본으로 하는 6060 독서운동 전개(1일 60분, 1년 60권; 필독 30, 교양 30), 교육과정 시간 10% 배정의 독서 토론 학습 활동 전개 등은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누구나 유창한 영어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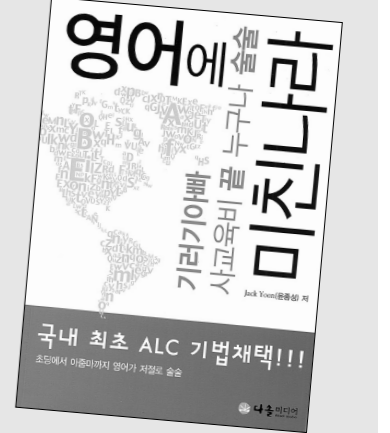
## 윤중성 ‘영어에 미친나라’ 출간

6년째 본지 미국에 따라가기 연재하고 있는 윤중성 자문위원이 ‘영어에 미친나라’라는 영어회화 책을 발간했다.

저자인 윤중성 자문위원은 성균관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를 졸업했다. 미국어외의 인연으로 주월미군사 및 주한유엔사에서 근무했으며, 미국방성 국제어학학교시스템 미국어(ALC)와 태국어(TLC) 및 미국NPS대학원 관리과정을 모두 국비로 졸업하고 주외국대사관무관, 대기업 해외 주재임원을 거쳐 90년 이후 기업체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경기도 해외통상촉진담당(쿠바, 우크라이나, 러시아) 및 북부발전 경제조정위원, 북부상사협회 회장, 대학초빙강사, 시사논론, 관공서 및 사회단체 국제행사 통

역을 하고있다. 윤 자문위원은 영어에 미친나라 서문에서 “21세기 들어 세계 구도가 급변하고 하나의 지구촌에서 영어 못하는 나라 국민들은 설 수가 없어지자 한국과 한 국민들은 뒤늦게 영어에 미치기 시작했다”면서 “가정 가계부에서 영어와 관련 사교육비가 년간 16조원, 중견사원 급여의 절반, 영어들의 동네영어놀이방이 월 100만원선, 어린이 영어발음용 ‘혀 수술’ 한국말로 아직 미숙한 채 조기유학을 다녀와 다시 한국어 과외를 시키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영어의 알파벳은 플라도 된다. 영문자를 보지 않고(할말을 거꾸로 생각하여),



누구나 읽으면(누구나 말이 되는), 유창한 미국영어의 달인이 되도록 미국 ALC 기법 채택했다 고 책자를 소개하고 있다. 또 그는 “어린이들은 문법을 모른다. 말부터 따라하고 같은 학교에서 배운다”면서 “영어는 공부 아니다. 그냥 사람들의 언어일 뿐이다. 집에서 아이들과 영어로 대화할 시대가 이미 눈앞에 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 ‘지역 농업 중심축으로 성장’ 기대

## 박윤국 시장, 포천그린농업대학 제3기 입학식에서

포천그린농업대학 제3기 그린경영과정 입학식이 3월22일 포천시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그린농업대학 입학생 55명과 시 관계자, 농업인학습단체장, 품목별연구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학식을 개최한 포천그린농업대학은 학생 박윤국 포천시장, 부학장 이응규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기획부장, 교수부장, 교과과장 등으로 조직됐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격려사를 통해 “포천농업 발전의 중심점에서 창의력을 발휘하고 최근의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여,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지역농업 클러스터의 중심

으로 성장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교수위촉장 및 다과회, 그린농업대학 제1기, 2기 졸업생과 만남의 시간이 있었고, 오리엔테이션에서 학생 개인별 작목 현황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글로벌 과학자를 꿈꾼다”

## 영북초 영재학급, 발명교실 개강식

영북초등학교 부설 지역공동영재학급 및 경기도포천교육청 영북초등학교 발명교실 개강식을 3월29일 오후 3시30분에 영북초등학교(교장 나병도) 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개강식은 영재학급과 발명교실 학생들 및 최길용 경기도포천교육청 교육장을 비롯하여 해당학교 교장, 학부모님들과 영재교육, 발명교육에 관심을 가진 많은 분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영북초 강당에서 발명교실 및 영재학급의 개강식을 한 후, 발명공작실과 과학실에서 학생 및 학부모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됐다.

영북초등학교부설 지역공동영재학급은 2006년 3월에 1학년 15명으로 개원, 올해로 2년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는 영북초 백승화, 김소연 교사가 “세계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과학자를 꿈꾸며...”라

는 목표 아래 영어로 진행하는 Immersion(몰입) 과학 영재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2007학년도에는 2학년으로 증설이 되었으며, 다단계 영재관별을 통해 선발된 5학년 15명, 6학년 1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과학, 수학 통합형으로 운영된다.

올해 역시 6학년 과학 영재 프로그램에서는 Immersion식 수업이 진행되며, 5학년 수학은 사이버 가정학습을 통해 심도 있는 학습을 할 계획이다.

영북초등학교 발명교실은 2006년 7월에 설치를 시작하여 11월에 구축을 마치고, 2007년도에 학교장 추천을 통하여 초등 4학년 21명, 5학년 15명, 중학교 1학년 10명 총원 46명으로 발명교육 및 레고, 로봇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초등 4, 5학년 학생들에게는 아이디어 발명 기법과 표현 기법, 다

양한 발명 공작 활동 등 일반적인 발명 교육뿐만 아니라 기어, 바퀴와 축,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한 레고교육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계획이고, 중학교 1학년 반에서는 일반 발명 교육과 더불어 라인드라이서 로봇, 물체를 던지고 피하는 로봇, 물체를 움켜잡는 로봇 등 다양한 로봇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영재학급 및 발명교실에서는 수업 이외에도 다양한 체험 및 현장 학습, 캠프활동을 하며, 인성교육 차원의 의미 있는 봉사활동과 상담 활동으로 올바른 인성을 가진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